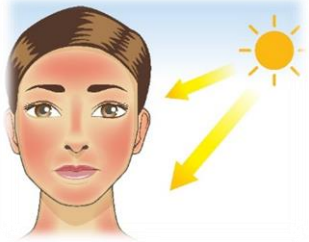


광과민증 자가관리

01 증상은 왜 나타나나요?



광과민증 (Photosensitivity)이란 자외선에 피부가 노출되었을 때 과도하게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.

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 중 특정 항암제 (플루오로우라실 등)를 투여한 후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광과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광과민증이 있는 경우 햇빛에 피부가 노출되었을 때 급성 화상을 입게 되어 발적, 부종, 물집이 생길 수 있으며, 심할 경우 피부가 벗겨질 수 있습니다.

이러한 문제는 항암제가 주입된 후 첫 48시간 내에 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광과민증 유발 약물

- 항암제 : 플루오로우라실 (5-FU)
- 항생제 : 테트라사이클린, 시프로플록사신 등
-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: 나프록센, 케토프로펜 등
- 고혈압약제 : 딜티아젬, 니페디핀 등
- 당뇨병약제 : 글리피지드, 글리메피리드
- 항우울제 : 아미트립틸린, 독세핀 등
- 항히스타민제 : 염산세리티진

광과민증 자가관리

02 대처 방안



햇빛이 강한 오전 10시 부터 오후 4시까지의 되도록 외출을 삼갑니다.



외출할 때는 면으로 된 긴 소매옷을 입고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여 얼굴, 등, 팔, 어깨와 같은 부위를 보호합니다.



흐린 날이라 할지라도 낮 동안에는 자외선에 노출되므로 주의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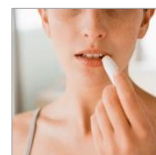
외출할 때는 최소 15~3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줍니다.



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는 살짝 많이 바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충분히 바릅니다.



자외선 차단지수 (SPF)가 15 이상인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야외에 오래 머물러야 하는 경우에는 30 이상인 제품을 사용합니다.



입술에도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보습제를 바릅니다.